

죄란 무엇인가요?

창세기 3:1-7

Jan 30, 2000

우리는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펼쳐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살펴보고, 그 두장의 본문을 공부했으며, 그 본문에서 시작하여 성경의 다른 문제를 연구하여 우리의 이해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장입니다. 동산에 있는 뱀, 유혹, 선악과, 속은 여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자를 따라간 남자에 대해 다룬 장입니다. 그런 다음 저주와 그 불순종에 대해 지불한 대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친숙한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 글의 서두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간단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동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대해 논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실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 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이 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수 있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단을 이해하지 못하면 치료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고 기능하는 질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장은 우리 우주와 그 우주의 생명체,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이 왜 그런지, 우리가 왜 그런지, 하나님이 역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구원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딜레마를 설명합니다. 우주의 모든 문제는 이 역사적 기록의 사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모든 문제입니다. 육체적 문제, 영적 문제, 도덕적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등 우주의 모든 문제는 이 역사적 기록의 사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은 진실하고 정확한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모든 세계관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근거하여 죄의 기원과 그 영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못 이해됩니다. 모든 것이 잘못 평가됩니다. 모든 것을 잘못 읽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 진단되고 절망적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매우 나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모든 것이 좋았던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는 무질서도 없고, 혼돈도 없고, 갈등도 없고, 투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쇠퇴도 없고, 죽음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삶은 무질서, 혼돈, 갈등, 투쟁, 고통, 불화, 질병, 쇠퇴, 죽음으로 정의됩니다.

우리 주변의 물리적 세계를 보면 무질서와 혼돈, 붕괴와 죽음을 향해 썩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물질은 무질서를 향해 끊임없이 분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 간

세계나 천체 세계, 천체의 세계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큰 덩어리들이 우주를 계속 돌진하면서 언젠가는 지구와 충돌하여 말 그대로 우리를 존재하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세계, 문명의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의 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투쟁과 죽음의 끊임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 세계를 보면 모든 인간 관계는 투쟁입니다.

인간의 삶은 투쟁입니다. 생명은 자궁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삶과 죽음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성장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도덕적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잘못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눈치채셨나요? 잘못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옳은 일을 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잘못된 동기인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조류를 거스르고 그 위에 머무르는 것보다 도덕적 하수구에 떠내려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증오와 범죄, 전쟁, 변태, 사악함 등은 삶과 함께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 장의 마지막에 이르러 모든 것이 매우 좋았는데 사물을 살펴보면 이 그림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 뭐가 잘못됐을까? 이것은 처음에 그랬던 방식이 아닙니다. 2 장까지 읽어도 6 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확장될 뿐입니다. 2 장은 24 절부터 1 장 끝까지 언급된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 장 끝에 31 절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 장에 묘사된 동산을 포함하여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여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고, 그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저를 정말 즐겁게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자기기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진화의 개념은 인간이 단순함에서 시작하여 복잡성으로 변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우 낮고 최소한의 지능 수준에서 시작하여 더 높은 지능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그 자체의 사실, 인간에 대한 진실은 진화에 대한 반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빠른 속도로 죄악을 쌓아가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비참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심리적 진화를 통해 천천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과거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과거보다 더 나빠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 비참함의 패턴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 세기에 걸쳐 기술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발전한 것은 인간의 타락을 확대하고 악화시킬 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창세기 1 장과 2 장이 말하듯 모든 것이 매우 좋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인간은 정상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로 깊은 바닥을 향해 어둠의 심연을 뚫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원래 창조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추락은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낙하산도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인간이 지옥을 향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기본적으로 모든 측면과 모든 관계에서 사악함과 악으로 정의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일곱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교활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뭔가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보고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도 함께 주었고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떠져 자신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뿌려 허리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 들어온 곳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아주 좋았던 것에서 아주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 장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다시 살펴보게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 장 12 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방금 읽은 사건에 대한 신약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궁극적인 부패의 척도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이브에게서 왔으며, 따라서 신학자들이 원죄라고 부르는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가 타락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2 장 마지막에 보면 남자와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악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어 드린 기록의 마지막 부분인 7 절에 보면 두 사람의 눈이 떠져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을 껴매서 허리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악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악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들의 성적 취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던 곳에 갑자기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지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지표는 16 절에서 여자에게 "내가 출산 할 때 당신의 고통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네 소망은 네 남편을 향한 것이며,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내의 말을 들었 기 때문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당신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평생 동안 수고로 그것을 먹으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희를 위해 자랄 것이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저주는 실제로 물리적인 저주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과 결혼 생활의 갈등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더 이상 에덴의 경이로움을 그냥 따먹을 수 없다는 저주가 있습니다. 땅을 경작해야 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 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가꾸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도덕적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이 많지 않죠. 금방 알 수 있죠. 우선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느꼈고 수치심은 죄책감의 기능이고 죄책감은 죄의 기능인데, 왠지 악한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너무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껴매어 몸을 가렸습니다. 4장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 한 아들은 다른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역사입니다.

타락은 모든 것이 매우 좋았던 창조 6일째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사이의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데, 가인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그 이전에 일어났어야 하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에덴의 영광을 얼마나 오래 누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후 그들은 모두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었으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에게 타락과 죄를 물려주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을 때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죽음의 힘이라고 부르는 죽음의 힘을 물려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는 잉태되는 순간 성장과 죽음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죽음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평생 동안 싸웁니다.

우리는 죽음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죄도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여기에는 전가 죄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딜레마를 설명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 삶과 모든 관계 영역에 영향을 미쳤을뿐만 아니라 땅에도 영향을 미쳤고 물질적 우주, 물리적 우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설명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온 피조물이 이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온 우주에 붕괴와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있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진화론자, 심리학 진화론자, 사회학 진화론자는 인간이 점점 더 능력이 향상되고, 점점 더 고귀해지고, 상향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제 기본적으로 선하고 실제로 더 좋아지는 곳에도 달했다면 왜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는 도덕적으로 더 나빠졌을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그의 환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로 귀결됩니다: 나는 나쁘지 않지만 당신이 나쁘고, 당신이 나를 나쁘게 만든다. 따라서 이 진화 과정에서 우리 중 일부는 올라가고 다른 일부는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선택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높이고 싶어하고 신을 제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죄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인간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완전히 잘못 진단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가혹한 처벌, 즉 삼진 아웃제, 즉 세 번 연속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고 열쇠를 버리는 법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공포의 통치를 끝낼 수 없고 부패의 통치를 끝낼 수 없습니다. 상담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심리 치료로는 불가능합니다. 프로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메닝거 클리닉의 칼 메닝거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한탄과 비탄에서 선지자들의 진정한 표어였던 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단어였지만 이제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는 죄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은 없을까요? 회개하고, 고치고, 속죄할 수 있는 죄는 없을까요? 단지 누군가가 어리석거나, 아프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회복 중이거나,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밤에 밀밭에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나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막연한 죄책감까지,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과연 죄는 어디로 갔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용문 끝. 그건 그렇고, 그가 쓴 책 "죄는 무엇이 되었나?"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날 공론장에서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죄의 본성?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락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유전적으로 모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악한 본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들은 모두 아담의 허리에 있었고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저주받은 남자와 저주받은 여자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그 저주를 품고 있다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악하게 구부러진 채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으로 대체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속까지 썩었다고 말하는 것, 모든 것,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끊임없이 악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기만적이고 필사적으로 사악하다고 말하는 것, 솔직히 여러분, 그것은 공론장에서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는 죄로 정의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일 뿐이지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결과적으로 죄책감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세적이고 구식이며 확실히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20년 전 웨인 다이어 박사가 쓴 "당신의 잘못된 영역"이라는 메가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잘못된 영역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은 죄책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영원히 근절하고, 스프레이로 청소하고, 살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죄책감으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면, 이러한 행동은 만연한 죄책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일을 하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책감을 무시하고, 남편을 꾸짖고, 자녀를 꾸짖고, 자기 비하의 감정을 정면으로 공격하세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세요. 양심의 외침, 가족 책임의 의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듣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양심에 귀를 기울이세요." 더 이상 죄책감을 심각하게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감자튀김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어느 조언 칼럼의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보편적인 조언을 요약한 제목이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세요. 기사 내용은 "강박적인 행동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난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자책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죄책감을 쌓아두면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걱정, 우울증, 부적절감, 타인에 대한 의존감만 더할 뿐입니다. 죄책감을 버리세요." 유비쿼터스의 대가인 앤 랜더스는 "인간 경험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하루, 일주일,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부정직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촌스럽거나, 이기적이거나, 썩은 짓을 했을 때 죄책감은 마치 나쁜 동전처럼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지, 어리석음, 게으름, 무심함, 악한 욕체 또는 흠발의 결과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잘못을 저질렀고 죄책감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니 안심하세요. 죄책감은 공해 물질이며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저는 뉴욕에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를 읽거나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가게를 털었는데 가게 주인이 총을 들고 그를 쏘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총에 맞은 강도의 변호사는 자신을 쏜 이 남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의 희생자이며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범죄에 내몰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총을 쏜 남자의 무감각함 때문에 충격 피해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남자가 피해자로서 도둑의 처지를 냉정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불쌍한 도둑은 남은 평생 휠체어에 갇혀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배심원단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항상 저를 매료시키는 것은 두 달 만에 그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또 다른 무장 강도를 저지르고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기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여성은 월경전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살해당한 샌프란시스코 시의 감독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유명한 트윅키 변호를 했습니다. 그는 호스티스 트윅키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트윅키 방어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과잉 행동이라거나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라거나 다른 어떤 증후군이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덕적 죄를 지으면 섹스 중독이라고 말하면서 섹스 중독자를 회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처럼 평생 회복할 수 없으므로 여기저기서 실수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중독일 뿐이니까요. 인간의 모든 잘못된 행동은 일종의 질병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만이라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 모든 도덕주의자, 모든 교육자, 모든 대학교수, 모든 사회학자, 그리고 사회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 속에 있는 현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인류, 아무도 탈출 할 수 없으며 사악하고 반항적이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도 부패하고, 감정도 부패하고, 의지도 부패하고, 행동도 부패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없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죄"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 자체로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매우 분명합니다. 아담의 죄가 대물림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 사이에 갈등과 살인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을 해석하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을 살펴볼 때 해석에 도움이 되는 다른 구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죄에 대한 좋은 성경적 교리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성경을 공부할 때 자주 하는 것처럼 유대인 학자, 랍비, 유대교 주석가들이 창세기 3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어보고 싶어서 유대인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대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타락한 죄의 존재를 항상 거부해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아담이 한 일은 아담이 한 일이며, 아담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그렇게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락이 대물림되는 방식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전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고립된 상황이었을 뿐이며, 우리에게선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원죄 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죄가 아담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하며, 나머지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동일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59년 펠리칸 출판사에서 발행한 "유대교"라는 책에서 이시도르 엠스타인은 "유대교는 원죄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생각은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항상 육체적 죽음에 대한 언급이며 기독교 교리에서 부활하신 구주를 믿는 믿음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 죽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이해하지만, 그 메시지를 앞부분에서 잘라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원죄를 부정하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용문은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참회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인간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세주를 없애면 원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며, 나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쁜 선택보다 좋은 선택을 더 많이 하면 좋은 선택이 나쁜 선택보다 더 커져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읽는 유대인 주석가 카수토는 "창세기 3장의 중심 주제는 세상의 악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인용문 끝.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대인 주석가들처럼 세상의 악의 기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선택을 했고 다른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악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신약성경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5장 12절이 바로 그 핵심 구절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형의 형벌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들은 죄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죄는 단지 유한성일 뿐이며,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실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원론적 철학자들은 죄가 순수한 영과 반대되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얻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또는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적인 부족입니다. 그런 다음 죄는 마음의 성향이며 구부러진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생각하고, 악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생략합니다. 악을 생각하고, 악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생략함으로써 죄를 짓는 네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하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주 들어온 것처럼 그것은 명령 또는 누락입니다.

이제 일곱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죄의 신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갈 때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밤에 다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두어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익숙한 내용이지만 일단 기초부터 다질게요. 누가 이 얘기를 들을지, 누가 테이프를 들을지, 누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을지 모르니 이 문제들을 확실히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란 무엇인가? 방금 정의를 드렸습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율법, 도덕적 성품이나 율법에 대한 모든 위반, 위반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요약하면,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한 가지 정의입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불법, 비정상, 무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3:4의 그리스어 구성에서 죄와 불법은 동일합니다. 무법이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니라"라고 더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믿음의 행위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옳은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17에서는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옳은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죄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나 그분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온갖 종류의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리스어 단어로 된 죄에 대한 모든 단어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 계시되어 있을까요?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죄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악을 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악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악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글썄요, 한때 미국의 악에 대한 우리의 기준, 미국의 도덕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의해 확립되었죠? 성경에 의해, 제 말은, 그것이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법은 그것에 기초해 만들어졌습니다. 도덕에 대한 우리의 관점, 범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 정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모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영역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세계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태와 안락사의 세계에서든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다루는 능력을 결정하고 누가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을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유전 공학이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세요.

우리가 죄의 수렁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해진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설문조사를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도덕성을 정의할 방법이 없겠지요? 설문조사를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하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돌려줍니다. 그들은 당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우리의 도덕성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죄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관되고 완전히 멀어질수록 도덕성을 정의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법정에 들어가서 성경의 표준을 도덕의 표준으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전통뿐이며, 전통은 설문 조사에 의해 전복되고, 투표에 의해 전복되고, 국민 투표에 의해 전복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전복하고 싶을 때 전복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것입니다. 행동의 재분류. 우리에게는 표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세대에게 가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어떤 기준에 따라 내가 죄인이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죠.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죄인에게 성경이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내놓은 도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읽어 보셨나요? 공부해 보셨나요? 정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표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경적 기준에 의해 지탱되는 사회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인기투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덕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없이 도덕성을 재정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이 도덕성, 의로움, 불의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기준도 없고 죄에 대한 정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에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계속 설교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신시키는 데 사용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성경 페이지에 게시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그분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본질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반할 때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죄에 대한 정의는 잠시 접어두고 죄의 본질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시다. 죄의 본질. 우선, 죄는 더럽습니다.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죄는 더럽습니다. 이것은 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특징짓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죄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우선 더럽습니다. 그것은 오염 물질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얼굴에 흉터가 있고 하얀 비단 천에 얼룩이 있는 것과 같은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의 얼굴을 가로 지르는 추악함입니다. 추함은 성경에서 매우 생생한 용어로 정의된 일종의 추함입니다.

열왕기상 8 장 38 절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추악하고 진물이 흐르는 상처에 비유됩니다. 스가랴 3 장 3 절에서 대제사장의 죄는 사람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도심 어딘가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같은 옷을 입고 자고 있는 노숙자들을 지나칠 때, 그것이 바로 죄의 그림인 더러운 옷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형상에 상처를 입힙니다. 죄는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귀함을 타락시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죄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스가랴 11 장 8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혐오를 말씀하시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세 목자를 한 달 만에 전멸시켰으니 이는 내 영혼이 그들을 미워하였음이라"라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도 나를 미워했다."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그들을 미워했다. 내 영혼이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도 나를 미워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볼 때 그것을 더럽게 봅니다. 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에스겔 20 장 43 절은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길과 너희가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면 죄의 더럽혀진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죄는 오염시키고, 죄는 더럽히고, 죄는 부패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1 에서 이를 육체와 영의 더러움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 토마스 굿윈은 "죄는 독, 죄인은 뱀이라고 불립니다. 죄는 구토물, 죄인은 개라고 불린다. 죄는 무덤의 악취, 죄인들은 썩은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죄는 수렁, 죄인 돼지라고 불립니다." 죄는 더럽고 타락하며 인간의 영혼에 마귀의 형상을 찍습니다.

죄는 둘째로 반역입니다. 그것은 더럽힐 뿐만 아니라 반역입니다. 그것은 더럽고 더러운 것, 오염되고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반역의 삶을 확립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레위기 26 장 27 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며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반대와 끊임없는 반역으로 걷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품을 짓밟고,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중 하나인 파샤는 반역을 의미합니다. 죄의 핵심은 반역입니다. 루시퍼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브도 그랬고요. 아담도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4 장 17 절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반드시 행하리라"는 말씀이 좋은 정의일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살인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고, 그분을 우리와 대신하게 합니다.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죄인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 됩니다. 따라서 죄는 더럽고 죄는 공개적이고 끊임없는 반역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죄는 배은망덕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7 장 28 절에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해를 뜨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으니"(21 절)라고 말합니다. 죄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죄인이 먹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숨 쉬는 모든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인이 경험하는 모든 기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인간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사랑, 모든 것. 그의 모든 감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감각을 충족시키는 삶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고, 느끼고, 일하고, 놀고, 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삶을 충만하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주셔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정도의 자존감과 가치를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서로를 돌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도록 섭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죄인들을 자비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들을 학대합니다.

마치 압살롬과 같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입맞춤하고 안아주자마자 나가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꾸몄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피조물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맞춤을 간절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친구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죄는 심각한 배은망덕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배은망덕입니다. 그리고 그 배은망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드러납니다. 죄는 더럽습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자, 다음에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밤 우리는 그토록 불행한 주제이지만 꼭 필요한 주제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와 그 심각성, 그 치유할 수 없는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만연함과 치명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 우주를 규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창조세계가 더 이상 선하지 않고 매우 악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죽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을 보내셨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가 인간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가 아무리 나쁘고, 더럽고, 부패하고, 대놓고 반역하고, 배은망덕해도 오늘 밤 세례에서 간증을 들었듯이 죄인이 와서 구할 때 여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현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해해야 할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며,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죄이며 인간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인을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자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